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론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담 사관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중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웅

예수님께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13일), 제9회 중현찬양의 밤

다음 주일(15일), 추수감사주일 및 가족연합예배(2·3부)

특별찬양(찬양예배)

"법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8). 감사는 우리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결정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은총을 받았습니 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롬 8:2).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을 입은 우리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여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총을 행하신 주님께 드릴 찬양과 감사의 예배가 이번 주 금요찬양집회(13일)와 다음 주일(15일)에 있습니다. 금요찬양집회 시에 있을 '중현찬양의 밤'에는 총 13개 팀의 찬양과 연주가 있을 예정이며, 모든 성도님은 교구 구분 없이 자유롭게 앉으시면 됩니다. 특히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2009년, 한 해의 삶을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살후 2:13). 2·3부는 가족연합예배이며, 찬양예배 시에는 특별찬양이 있습니다.

*영아·유아·유치·고등부는 자체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15일) 2010년 교구총회 4부예배 후 본당에서

생명의 말씀 (금요찬양집회)

죄의 정욕을 일컬어
더욱더 범죄에 이르게 하는
율법의 권세 (로마서 7:1~13)

이 후로 나누어서 역할을 설명한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롬 7:7).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확실하게 우리가 율법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죄와 정반대라는 것이지만, 율법이 없어도 죄는 죄다. 그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율법은 탐내지 말라고 우리를 향하여 명령한다. 그 결과 탐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 안에 숨어 있던 것을 밖으로 드러낸다. 하나님을 향하여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율법과 죄의 관계이다. 죄는 사람 안에서 점점 강하게 자라나게 된다(롬 7:8).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므로 더 이상 율법이 그들을 지배할 수 없음을 로마서 7:1~6 말씀은 밝힌다. 그리고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졌음을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과

하는 도구가 되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달았 고 오히려 율법이 파멸의 권능임을 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에게 율법은 특별한 위치, 영광스런 자리였다. 율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 내고 있기 때문이다(롬 7:12).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내게 사망이 되었 느냐"고 곧바로 바울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롬 7:13). "그럴 수 없다"고 대답한다. 오히려 나에게 사망을 증거해 주는 것은 '죄'라고 선언한다. 율법과 죄가 함께 만 들어 놓은 결과이다. 선한 것을 통하여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죽게 만들었 을 때에 그 죄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는 알게 되었 다(롬 7:11). 율법이 절대로 그 목적을 상실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다. 율법의 능력 은 잠자고 있는 죄를 끌어내어 죄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이토록 무서운 파멸 의 힘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하여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고전 15:56). 율법이 없으면 죄가 이토록 큰 권능을 가질 수 없다. 바울은 "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난 그 차이점도 설명한다(롬 5:13, 20, 7:9). 율법은 죄를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인간이 율법을 대할 때에만 진정한 의 미에서 죄인이 된다. 죄는 살아나고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율법이나 계명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파멸의 권세 중 하나가 되었다. 본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죄가 율법으로 말 미암아 기회를 타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은 사실상 파괴하는 권세가 되었다. 율법의 본래 목적과 실제적으로 율법이 가져다 준 영향력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 다(롬 7:10). 율법이 주어진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함 이었다(롬 3:19). 하나님의 진노처럼 율법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 하여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준다. 율법은 죄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이 죄를 자극하고 또 죄에게 힘을 주어 마침내 인간 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파멸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으므로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 해방되었음을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죽은 죄인 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의 의미와 역할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다. 죄와 손을 잡은 율법이 사람을 사망에 이 르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주는 도구가 되어야 한 다. 죄 아래 있던 자들 안에서 율법이 악을 끌어내는 힘이 있었다면 그리스도 안에 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믿는 자들 안에서 율법은 선을 이루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됨의 필요가 있는가?' 의 질문은 '율법이 생명에 이르는 신실한 동역자, 돕는 자가 되지 않았는가?' 의 질문 이 대답이 된다. 아멘.

THANKSGIVING HEART

⁽⁴⁾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⁵⁾Let your gentle spirit be known to all men.

The Lord is near. ⁽⁶⁾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⁷⁾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4~7)

True thankfulness recognizes God's providence. Giving thanks to God is vital for powerful praying, and reminds you of answered prayers. A thanksgiving heart lifts your thoughts to heavenly things, not earthly things. If your thinking focuses on earthly things, then thankfulness cannot come into your heart, but if you focus on heavenly things, then thankfulness fills your heart. You cannot complain and be thankful at the same time. You cannot be grumpy and grateful at the same time. Let's think about thanksgiving.

Thanksgiving increases faith! If you live by God's will, under His reign, then you always believe that He handles everything. Such faith lets you feel, remember, and witness God's blessings. Thanksgiving people demonstrate God's power every moment. They show others that their hearts are running by God's reign. No matter the circumstance, thanksgiving people are thankful because they let God control their hearts. They are able to rejoice in the Lord always. "Rejoice in the Lord always; again I will say, rejoice!" (Phil. 4:4). If you can only rejoice when things in your life are going well, that means you control your heart, not God. 1Thessalonians 5:16~18 say,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in every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What kind of circumstances should you rejoice in? All circumstances! Remember God's blessings make us gentle and positive people, "Let your gentle spirit be known to all men. The Lord is near" (Phil. 4:5). Thanksgiving should be a vital part of every prayer. In all your prayers, you must join thanksgiving with supplication. Thanksgiving for past answers to prayer builds faith for those yet to come. Whatever blessings you have received, when you give thanks it increases your faith for future blessings. Giving thanks, even for your trials, helps you to understand Jesus. Paul looked at trials as the food of faith. He saw trials as a good reason to exercise faith, thus causing it to grow. His desire was to face more persecution and suffering, so as to know Jesus more fully, "Now I rejoice in my sufferings for your sake, and in my flesh I do my share on behalf of His body, which is the church, in filling up what is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s" (Col. 1:24).

Thanksgiving improves health. Everyone can agree that this 21st century environment is really tough. Broken families, sickness, economic and earthly disasters all create terrible living conditions. We are living in a complicated and confusing world, but real Christians believe the Word of God. The Word of God says,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Phil. 4:6). Can you be thankful in a terrible situation? A truly thanksgiving heart improves your spiritual and physical health. God gives you the strength needed to handle everything. He helps you to pray and hold on to the cross of Jesus. The more the peace of Christ fills you, the more you want to hold on to the cross. Proverbs 17:22 says, "A joyful heart is good medicine, but a broken spirit dries up the bones." When you pray, you will receive God's peace and know that His will is being done to you. God's will is so much better than your own will. Thanksgiving and prayer provides a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Truly, a peaceful heart sees difficulties as part of God's design. Stress cannot stay in a thankful heart because God's peace overcomes it, "But the lovingkindness of the LORD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on those who fear Him" (Ps. 103:17). During hard times, maintain a thankful heart. Psalms 103:2~4 say,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ne of His benefits; Who pardons all your iniquities, Who heals all your diseases; Who redeems your life from the pit, Who crowns you with lovingkindness and compassion;"

Thanksgiving instills a desire to be like Jesus Christ. Jesus set the example for someone with a thankful heart. He was born in a manger and finished his life on a cross, and through it all had a thanksgiving heart. He gave thanks for the revelation of His Father's will,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comprehension,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 4:7). Jesus always went with God's will. He is our finest example of living God's way. When given a few loaves and some fish to feed thousands, He thanked God (Jn. 6:11). Can you do that? When faced with Lazarus' death, He gave thanks (Jn. 11:41). When faced with His own death, He gave thanks (Mt. 26:27). 1John 2:6 says, "the one who says he abides in Him ought himself to walk in the same manner as He walked." Walking the narrow path, like Jesus, is an obligation, not an option for all Christians.

My dear friend, thankful people proclaim the gospel. Thankful people motivate others to evangelism. Thankful people bring unity and peace in the church. Thankful people encourage others to take the cross. Are you an example of a powerful thanksgiving heart? Do you want to follow Jesus? Today is Thanksgiving Sunday, please don't look around for earthly things, but look for the cross of Jesus Christ. If you do, you will have a real thanksgiving heart that will increase your faith, improve your health, and instill the desire to be more like Jesus. Amen. ■

다들 주일 설교

감사하는 마음의 능력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⁶⁾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⁶⁾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⁷⁾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4~7)



김성판 목사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능력 있는 기도의 필수 요소이며, 이미 응답된 기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의 것에 고정되어 있다면 감사가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감사가 동시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투덜거리면서 동시에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다 함께 감사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한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느끼고, 기억하고, 증거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매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어 맡기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 4:4). 여러분이 만약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마다 기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16~18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기뻐해야 하나? 모든 상황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총들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을 관대하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 4:5). 감사는 모든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도 감사와 간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응답받은 기도에 대한 감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미 받은 축복들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에 대해 감사할 때, 미래의 축복들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심지어 고난을 당할 때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바울은 고난을 믿음의 양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고난 자체를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해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기 위해서 더 많은 박해와 고통 당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 1:24).

감사는 삶을 건강하게 한다

감사는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21세기의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깨어진 가정, 질병, 경제적 혼란, 환경적 재해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생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 것

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 4:6). 여러분은 끔찍한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참된 감사는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가득 채울수록 여러분은 더욱 십자가만 바라보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7:22은 말씀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지라.”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자신의 뜻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을 안겨줍니다. 진실로, 평안으로 가득 찬 마음은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을 정복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와 인자함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시 103:17). 힘든 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시편 103:2~4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감사는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소망을 심어줍니다. 예수님은 감사하는 삶의 모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팔구유에서 태어나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심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 4:7).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되십니다. 얼마 안 되는 때와 생전으로 수천 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요 6:11).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습니다(요 11:41). 자신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마 26:27). 요한일서 2:6은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좋은 길을 걷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에 대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연합과 화목을 가져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도로 격려합니다. 여러분은 감사하는 마음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세상적인 것을 찾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소망을 갖게 할 것입니다. 아멘. **▶**

2009년 제3차 청지기훈련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복음 23:34)

● 죄인 중의 괴수

청지기훈련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천국잔치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대적하며 주님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무지한 자들임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나 자신이 죄인 중의 괴수임을 깊이 알지 못하고 나의 의만 앞세우며 주님의 영광을 가린 채 살아왔으며, 주님을 멸시하고 교만함으로 자기 자신만 높이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살아온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였다.

이영석(안수집사, 21교구)

● 내가 너무 무지하였구나!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내가 너무 무지하였구나!’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새롭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영광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이제 내가 아닌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만을 자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음을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분명 주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완전히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며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길(빌 2:5)을 감사함으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며 영원한 삶을 소망합니다.

조옥련(집사, 5교구)

● 회개와 기도만이

지금까지는 내 가정, 내 친척을 위한 회개와 기도가 최우선이었었는데 죄와 사랑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은 뜻을 깨닫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중보기도가 절실하며 회개와 기도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과 영적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 혼신을 바쳐 기도하며 복을 전하는 삶을 제 여생의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영지(집사, 16교구)

● 오락가락하는 나에게

영원한 세계와 이 세상의 경계에서 오락가락하던 나는 진실되며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관계를 다시 되돌아본다.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믿는다. 순간적이고 썩어질 것에 주님을 버려버린 나의 어리석은 가치관이나 행동을 회개하며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인을 위해 기도하신 주님을 찬양한다. 또한 내 생활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마음으로 주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나 어떠한 행동을 없기를 바란다. 세상에 걸친 발도 거두어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강태연(권사, 4교구)



우리가 무지함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 간구하자 죄 용서함을 받은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이다

“너희는 태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9)

● 예수님의 음성은 명쾌했습니다

겸허한 죄의 고백과 주의 자비에 의지하는 연합찬양대의 찬양은 마음 문을 열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의 음성을 듣고 자존심과 명예, 지식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결단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중보기도가 곧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주를 창조하시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 그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으시며 중보하신 사람의 간구는 절절히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한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며 순종하기를 미루던 게으른 모습들,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습성, 완악한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리고 또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눈물로 죄를 고백하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음성은 명쾌했습니다. “주님!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기쁘게 집으로 향합니다.”

이수연(집사, 8교구)

● 더 이상 무지한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해 죄 용서함, 영원한 생명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회복하였다. 확신으로 기쁨이 넘쳤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를 마음껏 찬양할 수 있었다. 무지한 죄인이었지만, 무지한지조차 몰랐었다.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소경이었고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였다. 부패한 본성과 연약함, 사탄의 권세 밑에서 살았던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수없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무지한 자였음을 깨달았다. 이런 죄인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풀려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깨달았다. “그 사랑 감사하며 더욱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변화하리라. 더 이상 무지한 죄를 범하지 않으리라. 그 사랑 만민이 알도록 전하리라. 무지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도하리라.”

정옥선(집사, 3교구)

● 순종이 없다면!

금년 마지막 청지기훈련이라 더욱더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주제를 접하는 순간 충격이 몰려왔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롬 10:17). 당시의 무지하고 교만한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백성이 메시야이신 예수님을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날 나도 의식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스스로 물어보았다. 그리고 회개하였다.

하민선(안수집사, 2교구)

● 무지한 죄인을 돌아보게 해주신 주님

여태까지 저는 알고 지은 죄도 아니고, 몰라서 지은 죄라면 그것은 죄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한 죄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라면, 무지함은 더욱더 확실한 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역사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지한 이유는 주님에 대해 알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구원의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하셨지만, 게으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하지 않았던 죄를 돌아봅니다. 매주일 성경학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십자가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던 저는, 너무나도 말씀과 십자가를 향하여 무지했습니다.

노하은(대학부)

● 예, 맞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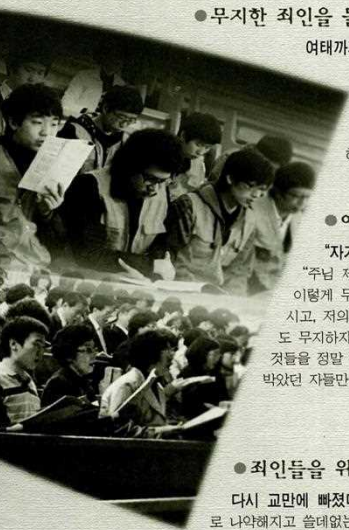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머리를 한 대 얻어맞기라도 한 듯 정신이 반짝 났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도 그런가요?”라는 기도가 저절로 입에서 새어 나옵니다. 저는 제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게으른 악한 본성을 지닌 이 죄인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뼈가 부서지면서도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저의 용서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더니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무지한 죄인입니다. 세상일에 도 무지하지만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에는 더욱더 무지했고 지금도 무지합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정말 알지 못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저는 주님을 수없이 배척하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골고도 언덕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만큼 무지한 죄인입니다.

김우준(집사, 청년부)

● 죄인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

다시 교만에 빠졌다. 세상의 시합에 지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저 고단하기만 했다. 나에게 빛은 언제 올까?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쓸데없는 자존심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있는 기본이었다. 세상에 살며 세상으로 빠졌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잊고 나 자신을 미워하였고 지쳐 있었다. ‘무지한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간구’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난 다시 주님의 품안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기도 덕택이다.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무엇인지 모를 나 자신을 향한 반향심과 교만함으로 과연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아직까지 사랑하실지 의문이 남아 있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신앙심으로 찬양대까지 갔지만, 주님께서 이런 무지한 나에게 그 답을 주셨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올리셨다. 예수님의 기도는 죄인들을 위한 기도였다.

고수연(고등부)



수요1부예배 메시지 / 메시아의 죽음

수요1부예배 메시지
(2009. 11. 4)

목자장에게 충성하라 (베드로전서 5:1~4)



베드로의 삶은 은혜로 가득했다. 그러나 은혜는 베드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은 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최고의 칭찬(마 16:18)을 받았지만 동시에 사탄(마 16:23)이라는 책망도 받았다. 더군다나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마 14:72)하기도 했다. 이처럼 실패와 실수로 가득했던 그의 삶은 은혜로 가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행 2:23). 이후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베드로의 삶은 거둔다(행 2:28). 그는 가는 곳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하였으며 하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하였다. 그리고 사역 말년에 그는 아사아 교회로 품고 베드로전후서를 썼다. 특히 오늘 본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베드로는 우선 자신이 장로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임을 밝힌다(벧전 5:1). 그는 부와 명예가 아닌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 이와 같은 마음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양무리를 양육할 것을 베드로는 교회지도자들에게 권고하였다(벧전 5:2). 특히 양들 앞에서 전통과 권위만을 중시하는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고, 자기 부인과 겸손의 본이 되라고 가르쳤다(벧전 5:3).

●베드로는 주님을 그의 목자장으로 보았다 다했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시 23:1)라고 노래했듯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보았다(요 10:11).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로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양에 줄గు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영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히 13:20~21). 분명 예수님은 세상 사람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심지어 부활의 아침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제자들도 없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길은 결코 그 속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꿈꾼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길을 걷고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올바르다고 여기는 그 길이 십자가의 복음과 가장 관계없는 사실을 아는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까 계산하는 사람들이여! 제산을 똑바로 하시오!"

메시아의 죽음 6

마가복음과 마가복음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

전도 바로 마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도 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통찰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쓸 때 자신이 목격한 것을 비롯하여 문서나 구전 등을 참고하였다. 이처럼 예수님과 관련된 문서나 구전된 것들을 모아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천국에 관하여 설교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가복음의 특징은 모든 사건을 직설적이고 간결하게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들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끄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나리니라"(막 1:16~20). 다른 복음서에는 어떤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거의 없다(막 3:13, 34).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과 유대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조직설적으로 기록하였다. 특히 사도들의 믿을 없는 모습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기록하였다(막 14:21, 27~29, 50~52). 이와 같은 이유로 사도의 제자(속사도)들은 마가복음을 중

말씀의 공식에 따라 나오는 명료한 정답인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보아야 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목자장이시다(벧전 5:2~4).

●베드로는 목자장이 나타나심을 기대하였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벧전 5:4).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다. 그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제림의 소망을 잊지 않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없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베드로는 제림의 때에 일어날 일(마 24:27, 30)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예수님이 승천(행 1:10)하실 때에도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려 주셨다.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르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베드로는 진실로 목자장이신 예수님의 나타심을 기대하였다(벧후 3:10~11).

●베드로는 목자장에게 받을 상을 기대하였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벧전 5:1)는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였다.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이었다. 마찬가지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양들이 가야할 길도 좁고 험하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미리 밝혔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벧전 5:10). 그러나 이미 밝히 것처럼 고난 뒤에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광의 관이 있다(벧전 5:4). 비록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 자신의 삶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을지라도 목자장에게 받을 상을 기대하였기에 그는 순교하기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제 22:12).

목자장은 예수님이시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았으며 그분이 걸으신 길을 걸었다. 교회지도자들도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술한 고난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목자들의 제림과 동시에 고난의 길로 나아가지 않았던 베드로처럼 교회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 같은 길, 회개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자.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아하지 않았다.

마가복음은 계속되는 제자들의 실수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ານ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막 14:28).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으리라" 하라 하리라"(막 16:7). 사도들은 무지했고, 배반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갔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마가는 이와 같은 사실을 50~65년경 마가복음을 쓰면서 분명히 목격하였다. 그 당시 사도들을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일은 어떤 자력과 준비가 아닌, 회개하고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순종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교육을 사도들이나 다른 제자들에게 별도로 받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께 직접 받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고(고전 11:23, 15:3~5). 전혀 준비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을 초청한 자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도 부르고 계신다. 나의 능력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은 결국 우상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제재와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십자가 없는 복음은 반드시 실패한다. 사도들, 제자들, 성령이 정통했던 종교인들, 그들 모두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만을 믿었다. 그러나 회개한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시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 우리도 회개하자. 예수님을 오직 대신하여 죽으자.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나의 모든 자아를 죽이자.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다." 아멘.

*매주 월요일경기도(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영혼들, 그 얼굴들

짐을 기웃거리다 지나치거나 삼삼오오 앉아있는 사람들을 볼 때면 잠시나마 두려움이 스칩니다. 막연히, 무엇이 두려운지도 모를 복잡하고 아주 미세한 감정이 잠깐 발목을 잡는 듯합니다. 그러나 나즈막이 '주님'을 마음속으로 불러 봅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들을 향해 밝게 웃으며 다가서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것은 내가 전하고 있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소한 말 때문일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나 또한 선교지 말로 증거되는 복음을 그들과 함께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과 수줍음으로 배시시 웃던 이들이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변하고 굳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런 반응에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지만 곧 주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그 영혼들에 대한 인타까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편지를 부리거나 못 알아듣는 말로 감경하게 주장하는 그들의 혼을 부여잡고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정말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 외에 구원 없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간절하게 전하면 그들은 눈빛이 흔들리면서 '저 외국인이 저렇게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전하는 예수가 과연 누구까?' 하는 마음의 동요를 보이곤 했습니다. 때로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전도언어를 통해 나에게 그 말습이 한없는 은혜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들어 봤다고 하며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주겠다는 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영접기도까지 두 손을 모으고 도박도박 따리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같은 죄인을 사용하셔서 이처럼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슴이 벅차 울랐습니다.

지금도 첫 선교지에서 있었던 모든 일 하나하나가 떠오릅니다. 군복 상의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벗고는 복음을 진지하게 듣고 영접기도를 따라하던 내 포래의 청년, 복음을 듣고 외면한 채 논을 가늘게 뜨고 비웃던 내 아이 포래의 소녀... 이제 한 가지 소망은 천국에서 그 영혼들을 반갑게 다시 만났으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재물들을 더 늘여가게 하시는 주님께서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영혼들을 더 많아지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정종현(집사, 23교구)

십자가의 길

사탄의 평화

마귀는 사람들을 평안의 요람에 태워 놓고 흔들어 줍니다. 사람들이 지옥의 낭떠러지에 처해 있어도 마귀는 평화, 평화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아나님은 죄를 깨우치게 하셔서 영혼을 낳추시고 그런 후에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평안을 누린다고 말하지만 그 평안이 폭풍 전임니까, 폭풍 후임니까?

참다운 평안은 괴로움 뒤에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나님은 참한 마음에 최고의 평안을 부여주십니다.

-토머스 왓슨



충감독은 우리 “예수님”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온 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온전히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온 날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반문해 봅니다.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람을 추구하며 살아온 날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이런 나를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셔서 단기선교를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과정에서 말씀을 더 보게 하였고, 기도도 더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 마음 한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선교지 땅에 오게 되었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전파를 준비된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부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으로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었고, 진정 마음에는 전하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입술로만 복음을 전했는데 만나는 영혼마다 다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접기도를 할 때 놀라움을 감출 수가 없었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 교만했던 나의 마음이 깨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좀더 빨리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이 맑은 눈동자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 후에 전하는 주님의 복음은 더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였고, 기쁨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가운데 나를 변화시키고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변화시키고자 단기선교를 준비케 하시는 가운데 충헌교회와 위임목사님과 교구와 팀장님과 팀원 가족들, 심지어 선교지의 영혼들까지 총동원하여 나를 엑스트라로 등장시키고 결국 선교라는 현장의 주연으로 세우주신 것입니다. 정말 신실하시고 같이 참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충감독하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면서 다시 한 번 십자가 아래 자신을 부인하기를 기도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라는 주님의 첫 사역의 일성(一聲) 아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순종하며 동참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유재성(성도, 22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10일(월) ~ 11월 18일(수)	11교구 4팀	이양호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1월 3일(화) ~ 11월 11일(수)	12교구 3팀	이인용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10월 27일(화) ~ 11월 4일(수)	14교구 3팀	백준문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52	권윤정	2	청년1부	
1453	이지연	2	청년1부	김연수(23)
1454	박아름	25	예바다부	전혜영(25)
1455	아마리	25	예바다부	정지호(25)
1456	한석현	13	청년1부	
1457	이지혜	11	고등부	정지현(11)
1458	이윤이	2	청년1부	
1459	윤순경	5	청년2부	리순진(24)
1460	박신재	5	청년2부	리순진(24)
1461	이지수	11	고등부	정지현(11)
1462	박보미	9	청년1부	위갑순(6)

※ 충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